

“모두 유죄”...檢,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전원 ‘실형’ 구형

참사 발생 2년6개월만...현산 관계자 10명 최고 ‘징역 10년’ 하청·감리업체 7명은 ‘징역 5년-10년’...내년 1월20일 선고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감독의 부재 등에서 비롯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모두 유죄’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검찰이 법인 3곳의 관련자 17명 ‘모두 유죄’라고 강조하며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3곳(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주)가현건설산업·(주)건축사무소

광장)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7명(현산 10명·(주)가현건설산업 4명·(주)건축사무소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2년6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친 참사와 관련, 동바리(지지대) 미설치(해체)와 공법 변경(데크 플레이트 설치),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의

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현산 소속 당시 현장 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관련자 9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징역 8년을, 법인에겐 벌금 1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청업체 가현건설 법인은 벌금 7억원, 소속 피고인 4명에겐 각각 징역 5년-10년을 구형했다.

감리업체 광장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소속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후 현산 측은 수사 당국이 지목한 붕괴 원인 중 ‘동바리 미설치’ 외엔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가현건설 측은 동바리 해체는 현산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며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등 원청에 책임을 미뤘다.

광장 측은 현장의 공법 변경과 동바리 조기 해체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품질관리 미흡에 대해선 참사 전 지적했다고 피력했다.

최후 진술에서 각 피고인들은 “사상자, 유족, 시민 등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평생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참사 3주기가 지난 뒤인 다음해 1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사고 책임자들에게 대한 심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행정처분이 2년10개월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안재영 기자

‘대출 대가 뒷돈’ 前 은행장 배임 혐의 부인

당시 공범도...사례비 준 브로커는 일부 인정해 공방 예고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의 은행장이 대출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연루자 간 입장이 엇갈려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저축은행장 A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특정법상 배임, 알선수재, 중재 혐의 등을 각각 받는 같은 은행 관계자 B씨, ‘브로커’ C씨, D씨와 함께 기소됐다.

A씨와 B씨가 속한 은행에선 지난 2021-2022년 사이 한 업체에 대해 70억원의 대출을 해줬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행위 외에도 여러 업체에게 해 준 대출의 대가로 건마다 수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C씨와 D씨는 각각 A씨에게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의 경우 대출 알선 명목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씨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대출 건마다 수수한 액수가 공소사실보다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B씨와 D씨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반면, 브로커 C씨는 일부 시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재개되며,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증인 신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지역의 한 변호사를 구속하는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재영 기자

광주·전남서 교통사고 잇따라...7명 사상

운전자·보행자 등 3명 사망

광주·전남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3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0분께 광산구 한 도로에서 A(30대)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던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34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교차로에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B(60대)씨가 좌회전하던 5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를 낸 60대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1시47분께 남구 행암동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선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인도 방면으로 전도됐다. 전도로 인한 보행자 피해는 없었으나, 충격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 탑승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인도에 설치된 울타리 등 교통시설물 일부도 파손됐다.

전날 오후 7시33분께 여주시 남면 금오도 편도 1차선 도로에선 C(50대)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인근 전보대를 들이받았다. 화물차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으나, C씨는 이송된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각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안재영 기자

사고 잠적 16시간 후 자진 출석

광주 도심에서 단독사고를 낸 뒤 SUV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40대 운전자가 약 16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식당 상가 및 블라드 등 인도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적절히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A씨는 16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3시께 경찰에 출석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0%로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조금 마신 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성희 기자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인도 위에 드러눕는 ‘다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주택 침입 지인 살해 후 도주 60대 붙잡혀

여수경찰, 범행 15시간만 검거

심야시간대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A(60대)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여주시 신월동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거실에 있던 B(7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함께 살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순천시 비스타미널 주차장 근처에서 범행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 가족이 대문 옆 계랑기 위에 집 열쇠를 놓아둔다는 사실을 떠올려 집에 침입한 뒤 범행했으며, 흉기는 도주 과정에서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채용 비리’ 의혹 전남도립대 총장 직위해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도립대 총장이 직위해제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특정감사 결과, 채용 비리 의혹으로 감사관실로부터 중징계 요청을 받은 도립대 총장

A씨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도립대 특정감사는 2022년 1월-2024년 3월 사이 채용·근평·계약·복무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징계위원들은 총장 A씨에 대한 검찰의 인지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기소 여부와 시점에 맞춰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징계요청에 따라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양시원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SONY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DVD 변환전문업체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